

## - 사생결단 기도회 여섯째 날 -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

예정이란 무슨 뜻인가?

영어로 Predestination, Pre(미리) + Destination (숙명, 최종목적지)로 “미리 숙명되어진”이라는 뜻입니다.

1. “무엇이 미리 숙명되어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은 “기계적, 짜여진 숙명”에 관심을 둡니다.
2. 기계적이고 짜인 숙명이라는 것은, 자신이 걸어가는 삶이라는 여정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만약 기계적이고 짜인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할 일이 일어났을까요?
3. 내일이라는 미래의 시간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디서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등의 육하원칙적 기준에 따라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짜두셨으니, 소위 말하는 예정(?)해 두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질문하듯 기도하며 하나님을 다그치기도 합니다. 내일 일을 알아듣고자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자유 의지적 요소임이 증명되고 강조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일 일을 보고 듣고 깨닫고자 함이 기계적, 짜인 틀에서의 예정이 아님을 입증하는 셈입니다.
4.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짜두셨으니, 즉 예정(?)해 두셨으니, 자신의 자유의지적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한해 버립니다. 예배, 찬양, 기도, 신앙 그 자체가 식상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설정인데, 예정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분 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해지고 짜여진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의 삶을 집어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6.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극적인 상황이나 환경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전혀 뜻밖의 상황과 환경에서 삶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원치 않은 열매들로 인해 자기 삶을 또 다시 희생하고 절제하고 인내해야하는 시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7-8)

7. 마침내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반드시 나타나니까 굳이 애걸복걸하며 매달릴 필요가 없어!”  
 “야! 지금 그렇게 애가 타면서까지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거니까 그저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아가면 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오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점부터 무너지게 되고 관계가 성립되고 깊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 도대체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9 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로마서 8:29-30)

### 1. "미리 아신 자들을"

- 하나님의 계획, 예정 안에서 사람들을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하나님의 선택과 미리 계획하신 것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 2.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택하신 사람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 3.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사시고 불러 내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히시듯 그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의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의롭다고 불려진 것이지, 내적 상태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죄인된 상태의 의인들을 성령을 통하여 성화되게, 의인다운 존재로 변화시키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그 분이 선택한 자들의 죄인됨이라는 존재를 깨끗하고 의로운 상태의 의인으로 변화시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의 예정이라 함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나타날 구체적인 사건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무조건 나타내시고 그 사건 속으로 무조건 끌어가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분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창조의 본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 **회복**하시는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 **회복**된 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으로,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미리 계획,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인류 가운데 나타났고,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가능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 다 아신다는 이유로 우리의 길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서 알려주신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들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1.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가능성을 아시기에, 그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라는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가죽옷과 희생제사라는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예정하셨기에, 그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와 함께 못하실 일이, 안 하실 일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3. 미래의 구체적인 어떤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며 닮아가는 그의 사람들과 함께 계획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나타내시며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4.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내일** 일을 듣고 알고 깨닫고자 함보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들이며 모든 발걸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분만을 의지하며 동행하듯 걸어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3-6)